

무등산 정상 개방 안된다는 군부대의 생똥맞은 제안 환경파괴 뻔한데... 새 등산로 만들자고?

“시민 반발 무마 면피용” 지적 군부대 이전도 장기화 가능성 광주시·공원사무소 “절대 불가”

무등산 정상 개방 연례 행사를 전면 불허한 군부대 측이 차선책으로 무등산 정상부(천왕·인왕·지왕봉)에 신규 등산로 개설을 허용할테니 검토·추진해달라는 입장을 최근 광주시와 무등산사무소 측에 전달했다.

무등산 정상부 정기 개방 행사를 불허하는 대신, 부대 경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천왕봉~인왕봉~지왕봉 등을 잇는 정상부 등산로(4km가량)를 새롭게 만들면 부대 측 개방하지 않고서도 시민 등 탐방객들이 상시적으로 무등산 정상을 볼 수 있다는 게 군부대 측의 설명이다.

군부대 측의 제안을 검토 중인 무등산사무소와 광주시 측은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자연공원법 등 관련법을 검토하고 환경단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상부 신규 등산로 개설은 ▲국립공원 정

상부 환경 파괴 ▲부대 이전 사업의 장기화 가능성 ▲안전한 방식의 정상부 탐방을 원하는 시민들의 여론 등의 이유로 군부대 측 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립공원 내에서 1km 이상의 신규 등산로를 개설하기 위해선 국립공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하는데 이마저도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부대 측이 차선책으로 내놓은 ‘군사보호시설 구역 내 신규 등산로 개설 허용안’이 무등산 정상 개방 전면 불허 방침을 세운 뒤 시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면피용’ 제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해당 군부대 측은 그러나 “무등산은 광주 시민들에게 단지 도심에 인접한 평범한 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군)도 잘 알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정상부 조망이 가능한 신규 등산로 개설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

청했다”면서도 “영공 수호가 본연의 임무인 공군으로서의 신규 등산로 개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은 꼭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와 무등산사무소 측은 “공군부대 측이 우리가 조금 양보해서 2회라도 정상 개방을 요청했는데도 거절하는데 이어 무등산 정상부 환경 파괴가 뻔히 보이는 신규 등산로 개설안을 들고 나온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신규 등산로 개설은 환경 단체 반발은 물론 군부대 이전 사업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군부대가 원래대로 무등산 정상을 정기적으로 개방하도록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압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게임·영화에매사이트 등서 정보 빼내 전당 최저 1원에 팔았다

2700만명 개인정보 유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시중에 나돌고 있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21일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구속된 총책 김모(24)씨 등에게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제공된 개인정보는 모두 2억2000만여건이다.

중복피해를 제외한 피해자 수는 모두 2700만명으로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해당 연령대 인구 3700만명의 72%에 달한다.

이름·전화번호·주소·아이디·비밀번호·일부 금융계좌·이메일 주소 형태로 1억여건이, 이름·주민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발급일자·전화번호가 유출된 경우도 100여건에 달했다.

파일공유 사이트 A사(690만명), 게임 사이트 B사(280만명), 영화에매 사이트 C사(150만명) 등 가입정보가 고스란히 해커의 손으로 넘어갔다. 해킹된 정보 중 이름과 주민번호는 건당 1원에, 대출 사기에 활용 목적으로는 10~100원, 불법 도박 광고에서는

300원, 고급 정보는 2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개인정보 대부분은 2010년께 중국에서 활동하는 전문해커가 해킹한 것을 김씨에게 넘겨주고, 이를 또다른 국내 해커가 해킹해 유통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공범과 함께 중국 동포(추적 중)의 알선으로 중국 해커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일명 추출기라는 해킹툴에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사이버머니와 게임 아이템을 현금화해 4억원을 쟁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목업 이모(20)씨는 악성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P2P 사이트 동영상 파일 등에 악성프로그램을 숨겨 PC를 감염시킨 뒤 원격제어, 키(key) 로그 등으로 A씨가 보관하던 2억2000만건 가운데 1억6000만건을 다시 해킹해 유통하기도 했다.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꾼 해도 피해는 막을 수 없어 모든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각각 다르게 설정하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이미 유출된 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뚜렷하게 없을 것 같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종행기자golee@

GS칼텍스 기름유출 사고 때 금지된 유처리제 살포 유출량 축소 의혹

지난 1월 31일 여주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총돌 기름유출 사고 당시 대책본부가 금지했던 유처리제를 GS칼텍스가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GS칼텍스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사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당시 GS칼텍스 측에서 최대 800여 t의 유처리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름을 분해하는 유처리제는 사용 이후 가라앉는 기름 덩어리 등의 영향으로 2차 환경오염이나 수산자원의 피해 우려 때문에 연안 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유처리제를 사용하면 기름 입자가 쪼개지거나 가라앉아 기름회수기를 이용한 기계적인 회수나 흡착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해경은 연안지역에 유처리제 제한·금지·고려 구역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당시 대책본부는 사고 당일 오후 7시께 사고 해역에서 유처리제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GS칼텍스 측은 같은날 오후 9시께 대책본부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사고 해역에 유처리제를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시 GS칼텍스가 바다에 떠 있는 기름을 최대한 빨리 유출량을 축소하려는 의도에서 유처리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현열하는 북구청 공무원. 을지연습 기간인 21일 광주 북구청 회의실에서 공무원들이 현열에 참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진도 VTS 해경들 “잘못은 인정...형법상 무죄” 주장

반쪽 근무로 관제를 소홀히 해 세월호 이상징후를 놓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 대부분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형법상 죄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업)는 21일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센터장 김모(45)씨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5명 구속 기소)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센터장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야간 근무 당시 (두 명)이 구역을 나누지 않고 한 명이 도맡아 관제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불법 근무를 묵인·은폐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센터장으로서 책임 관제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사무실 내부를 찍는 CCTV를 떼어낸 것도 예조 설치 안 됐던 것처럼 꾸미려고 공모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장기간 수리를 안 하고 방치된 사실이 세월호 사고 이후 알려지면 관리 문제가 불거질 것 같아 부담을 느낀 조치라고 변명했다.

다른 관제사의 변호인들도 “야간에 변칙적으로 관제를 수행한 사실이 (내부)징계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무유기가 되는지 판단해 달라”는 등 법리적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 13명 중 1명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아이 분유값 벌려고...” 상습 차탈범이 형제 나란히 경찰서행

○...생후 4개월된 아이의 분유값을 벌기 위해 차탈범이 나선 형제가 나란히 경찰서행.

○...21일 광주서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모(25)씨 형제는 지난달 9일 새벽 2시45분께 광주시 북구 북동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노모(57)씨의 1t 화물차에서 현금 2500원과 블랙박스 등을 몰래 가져가는

등 상습적으로 차탈범이 한 혐의.

○...형제는 세 차례에 걸쳐 훔친 물품을 광주 A전당포에 팔아 넘겼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전당포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형은 경찰에서 “동생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불쌍한 마음에 분유값이라도 보태주려고 차탈이를 했다”고 진술.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2013년 서양새마을금고 사랑 나눔

2013년 금고자산 ⇒ 2,607억원
당기순이익 ⇒ 15억3천만원
배당금 ⇒ 5.0% (현재 정기예금 금리 1년 3%)

이장 안두경, 전무 하현준

광주지역 자산1위, 당기순이익 1위, 출자배당금 5%

서양새마을금고

기성고대출 전문취급금고

망은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신 분과 건설회사를 위한 대출!

- 착공부터 완공까지 자금지원
- 대출한도는 최고 15억
- 토지에 기존 대출 있어도 가능

대출금 지급방법: 공사 기성에 의한 지급

상담시 구비서류:

- 시설명세서와 소요자금 명세서
- 공사시방서
- 공사도급 계약서
- 도급업자의 도급공사
- 공사비목명세서
- 기성부분 보고서(기성고명세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담당 민 창원 과장 연락처 062)720-2828

서양새마을금고

2014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총결산 및 하반기 부동산시장을 말한다 !!

99% 적중률! 최고의 부동산 실전문가 김영표 대표가 말하는 소액으로 쟁취할 수 있는 월세나오는 부동산을 찾아서...
총자산 3천~1억으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장소: NC백화점(구 현대) 10층 문화센터
일시: 2014.8.22(금) 2시/7시 선택
문의전화: 062)383-1330(사전예약)

강의/내용:

- ① 2014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투자전략 대공개
- ② 광주·전남 토지투자 새로운 전략 및 뜨는 지역 대공개
- ③ 광주·전남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주택시장 투자전략
- ④ 수익형 부동산 틈새 아이템 투자전략 대공개
- ⑤ 3천~1억 토지투자 월세받는 투자법 공개
- ⑥ 토지투자의 정석법 강의(부동산 어떻게 할 것인가)
- ⑦ 도시 재생사업으로 인한 재개발 재건축 투자전략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가 전문가
(현)영지부동산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영지부동산 아카데미 소장
(현)각종관광사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세미나 80회 이상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NAVER 영지부동산연구소

2014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97)	광주교육대학교(107)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2014. 9. 5(금) 09:10(특급반) ·금요일 오후반:2014. 9. 5(금) 14:10(초급반) ·토요일 오전반:2014. 9. 6(토) 09:10(중급반) ·토요일 오후반:2014. 9. 6(토) 14:10(특급반)	·월요일 오후반:2014. 9. 1(월) 14:10(초급반) ·월. 목 야간반:2014. 9. 1(월) 19:00(중급반) ·목요일 오전반:2014. 9. 4(목) 09:10(고급반) ·토요일 오후반:2014. 9. 6(토) 14:10(특급반)
모집기간	2014. 8. 1(금)~9. 6(토)	2014. 8. 1(금)~9. 6(토)
수업기간	2014. 9. 5(금)~2015. 2. 14(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4. 9. 1(월)~2015. 2. 14(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정 명의로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각 원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초·중·고)교과 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학)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정 명의로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각 원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초·중·고)교과 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학)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010-3614-4160	·문 의:062)520-4243 ·지도교수: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